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5. 가을 소풍(10.6. 주일 오후)을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9/22)	다음 주(9/29)	10/6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윤경 성도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이승재 전도사	이윤경 성도	최수연 성도
성경 봉독		편재천 성도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식사 준비		장윤경	이강진 순	이윤경 순
정리		김윤기	이윤경 순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38호 2019.9.22.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3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110장, 찬송가 120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27편	편	재	천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1장 5-8절	김	윤	기 목사
[후히 주시는 하나님]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357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윤	경 성도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승재 전도사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9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8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58:6-11
 설 교: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8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公的)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 설교 노트: 약 1:5-8, 후히 주시는 하나님

1. 지혜의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잠 2:6).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잠 2:7-9). 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잠 1:7; 9:10). 지혜가 필요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2.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5,6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마 7:7-11).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심하며, 두 마음을 가진 자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6-8절).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는 흠어진 교회를 향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야 24:24).

우리는 죄로 하나님께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십니다(마 6:8).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마 6:9).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자녀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